

김재혁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A5/128면/5000원

최근 텔레비전에 토론 프로그램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신문지면을 통한 논쟁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토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전술'(tactics)로서 논쟁방법은 논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갈등당사자들은 물론, 군사독재시절을 살아오면서 토론의 장에서 이뤄지는 논쟁술을 교육받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실용적인 논쟁술 제시해

흔히들 논쟁하면 논리학과 연결짓지만 쇼펜하우어가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김재혁, 고려대학교출판부)에서 말하는 논쟁은 "논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고와 언술의 민첩함과 재빠름, 전문성을 의미"하는 매우 실용적인 전술을 뜻한다. 특히 여기서는 객관적 진리의 추구와는 관계 없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견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논쟁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구사하는 전술을 미리 알아차리고(예를 들어, 요령8: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나라, 요령 9: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질문을 질서정연하게 하지 말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라 등), 이런 전술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도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접한다면 다분히 비윤리적이면서도 책략적인 요령(예로서 비근거를 근거로 가정함으로써 행하는 기만: 요령 14·20·24 등)도 많지만 38가지의 다양한 논쟁전술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이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주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간단



실전에서 승리하는 법 알려주는 논쟁의 '손자병법'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을 읽고

허경호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토론과 논쟁문화가 일천한 상황에서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은 관심을 끄는 책이다. 제목대로 논쟁에서 이기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철학자가 쓴 책인데도 다분히 비윤리적이면서도 책략적인 요령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논리학과 토론술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도 실려 있어 논쟁술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하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요령 32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위 사상검증을 벌여왔던 사람들의 단골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요령인 "상대방이 우월하여 우리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을 경우, 인신공격과 모독, 무례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이미 논쟁에 패배한 까닭에" "정신의 힘을 떠나서 육체의 힘, 혹은 야수성에 대한 호소"라서 우리가 피할 것 같지만 "매우 애용되는" 기술이란. 여기서는 이 요령보다도 대용요령이 더 중요한데, 똑같은 수준의 맞대응보다는 "얼음처럼 찬 냉정함"으로 "그것은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하고 나서 얼른 논쟁의 사안으로 돌아가 여기서 상대방의 주장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준다"는 것이다.

86쪽과 87쪽의 논쟁할 만한 상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도 논쟁을 벌이기에 앞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논쟁적 토론술"(90~118쪽)이란 제목이 붙은 뒷부분은 논리학과 토론술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아 독자들 입장에서는 먼저 이 부분을 읽고 개별요령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듯하다. 역자가 밝혔듯 원본의 순서도 이 부분이 앞에 있는데, 다음 판에서는 책의 체제가

원본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보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

사실 나는 이 책을 2~3년 전에 김혜령님의 번역본으로 접했다.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역자가 동일한 내용을 번역한 이유가 궁금하다. 하지만 김혜령님이 'Dialektik'을 변증법으로 번역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바로 역자가 설명했듯이 대화의 기술을 말하는 '토론술'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은 김재혁 교수가 책머리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어 반복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특히 책 뒤의 연보에 보면 쇼펜하우어가 헤겔과 철학적 대결(?)을 벌였고, 심지어 "헤겔과 그 도당"(125쪽)이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Dialektik'을 변증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책 말미의 연보를 보면 쇼펜하우어에 대해 내가 잘 몰랐던 사실, 즉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원래 쇼펜하우어를 훌륭한 상인으로 키우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는 것, 집안 내력으로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 당대의 학자 헤겔과 벌인 대결 이야기, 괴테와의 교류 등을 알 수 있어 또 다른 흥미를 자아낸다. 논쟁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